

# 로또·장학금에 아파트까지...쏟아지는 백신 인센티브

## 각국 집단면역 달성 총력전

### 미국 각종 혜택에 접종률 상승

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등 당첨 금액이 100만 달러(11억 1600만원)를 넘는 복권이 속속 등장했고, 홍콩에서는 아파트를 제공키로 했다. 반발을 불러일으킬 제재보다는 "당근책"을 제시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예전부터 백신 접종 거부감이 큰 미국에서는 주 정부별로 앞다퉀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인의 51.2%가 코로나19 백신 접

종을 완전히 마쳤고, 62.4%는 최소한 1회 접종을 끝냈다고 약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2세 이상의 백신 접종자 가운데 30명을 뽑아 5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당첨되면 18세에 찾을 수 있다. 또 지난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거나 마친 주민에게는 50달러짜리 식료품 상품권을 지급했다.

콜로라도는 백신 접종자 중 5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었다. 델라웨어에서는 5월25일~6월29일 사이에 백신을 접종하면 휴가 상품권이나 도로 무료 통행권과 같은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생기고, 12~17세라면 주립대학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누릴 수도 가능성이 있다.

뉴욕도 대학 전액 장학금에 더해 이달 24~28일 백신 접종자 중 최고액 500만 달러의 상금을 주

로 했다. 메인주는 이달 말까지 백신을 접종하는 누구에게나 낚시·사냥 면허증을 부여하고 있다. 미네소타도 6월 말까지 백신을 접종하면 주립공원 무료 입장과 낚시 면허증을 준다.

이 같은 장려책이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는 실증 사례도 나왔다. 오하이오에서도 성인 접종자 5명을 뽑아 각각 1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미성년자에게는 4년 장학금을 선물하기로 했다.

그러자 백신 접종률이 16~17세에서 94%, 18~19세 46%, 20~49세 55%만큼 각각 증가했다고 약시오스가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7월 4일까지 성인 1억 6000만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성인 70% 이상은 적어도 한 번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백악관은 만남을 추천하는

데이팅 앱 매치, 틸더, 범블과 제휴해 회원 소개란에 백신 접종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만남 확률을 높이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홍콩에서는 아파트 경품이 등장했다. 접종자 중 1등 경품은 가격이 1천80만 홍콩달러(약 15억5천만원)인 42㎡ 면적의 새 아파트다. 홍콩에서 28일 현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비율은 17.6%,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은 12.9%였다.

이밖에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선 접종을 마친 주민을 매주 추천해 소 한 마리를 상품으로 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시는 학생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려고 접종률이 가장 높은 학교의 학생은 문화 행사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미 마이애미서 또 총기 난사 2명 사망·20여명 부상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지난 30일(현지시간) 총기 난사로 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AP 통신·CNN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이날 새벽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북서부의 대형 쇼핑센터에 있는 엘몰라 연회장에서 발생했다. 이 연회장은 랩 콘서트를 위해 임대됐으며, 사건 당시 일부 콘서트 참가자들이 행사장 밖에 모여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알프레도 라미레스 카운티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0시에서 1시 사이에 닷산 흰색 패스파인더가 사건 현장 부근의 당구 클럽에 차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 괴한 3명이 소총과 권총을 들고 차에서 내렸고, 연회장 밖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한 뒤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2명이 숨졌으며 20~25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가운데 최소 1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체포된 사람이 있는지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CNN은 마이애미 지역에서는 28일에도 또 다른 총격 사건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28일 늦은 밤 마이애미 원우드 지역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에 연루된 차종인 은색 닷산 맥시마를 찾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

## 치솟은 장례 비용 감당 못해 인도 코로나 시신 유기 속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인도에서 코로나19 희생자가 대낮에 강으로 버려지려는 장면이 시민 카메라에 포착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NDTV, 더한두 등 인도 언론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소개하며 범행에 가담한 남성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지난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28일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발람푸르지구에서 촬영됐다. 차를 타고 지나던 시민이 촬영한 이 영상을 살펴보면 갠지스강 지류인 라프티강의 다리 위에서 두 남성이 시신을 난간 위에 올려놓고 무언가 작업을 진행했다. 두 남성 중 한 명은 방호복 차림이었다. NDTV는 이에 대해 "운반용 부대에서 시신을 꺼내려 한 장면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방 당국에 따르면 해당 시신은 코로나19 희생자였고 두 남성은 이 희생자의 친척이었다.

인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는 화장을 선호하며, 이슬람을 믿는 14%는 대부분 시신을 매장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갠지스강에 시신이 수장 또는 유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화장용 땔감 가격 등 장례 비용이 치솟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가족이 그 냥 시신을 버리는 것이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 중재자 이집트와 '하마스 휴전 안착' 논의 양국 외무장관 회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휴전을 안착시키기 위해 중재자인 이집트와 고위급 회담에 나섰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카이로를 방문해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이스라엘 고위 외교관이 이집트를 방문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회담 사실을 확인하고 "동여부살렘과 알야크사 사원, 모든 이슬람권과 기독교 성지 문제는 특별히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메드 하페즈 이집트 외무부 대변인은 회담 후 "수크리 장관은 양측간의 진지하고 건설적인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요구했고,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어떤 수단도 삼갈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슈케나지 장관은 회담 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자들의 독세를 막고, 실종자와 하마스에 의해 억류된 포로들을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이집트 이스라엘 대사관은 회담 전 트위터를 통해 "양국 외무장관이 하마스 휴전 문제, 하마스에 의해 억류된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들의 석방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썼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한 이집트는 양국 외무장관 회담과 함께, 정보기관인 이집트 총정보국(EGID)의 아바스 카멜 국장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에 파견했다. /연합뉴스



미 산타모니카 해수욕장 북해동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인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해수욕객들이 북해동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는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올해는 31일이다. 올해 메모리얼데이는 미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지침을 완화한 이후 첫 번째로 맞는 연휴여서 미국인들이 대거 여행길에 올랐다. /연합뉴스

## 북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비난...“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

### 한미정상회담 첫 반응

### 문 대통령에도 거친 비난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을 두고 미국이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1일 김명철 논평원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 조치는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정책과 그들의 수처스러운 '이중 언행'(double-dealing)의 적나라한 상기"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많은 국가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들여 만든 '실용적인 접근'과 '최대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핵심 대북정책이 그저 속임수라고 보고 있다"며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이라는 속담을 들며 "이제 미국과 남측 당국이 그들의 공격 야심을 분명히 했으니 북한이 자기방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타할 어떤 근거도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오판했다"며 "한반도 안팎에 비대칭적인 불균형을 조성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이고 전시 상황에 있는 한반도에 중대하

고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그의 이쪽 저쪽의 반응을 보려는 필사나운 행태에 구역질이 난다"고 비난했다.

이 논평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관공매체를 통해 내놓은 첫 반응이다. 31일 오전 8시 현재 조선중앙통신은 이 논평을 영문으로만 발표했으며 한글 원문은 공개하지 않아, 미국을 겨냥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